



소개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페가수스

아름다운 핸드 인그레이빙과

탁월한 기술력의 조화

주요 특징:

- **뛰어난 장인 정신:** 180 시간에 걸쳐 완성된 핸드 인그레이빙 케이스, 핸드 래커 및 베벨 처리된 브리지, 풀 스켈레톤 처리된 뒷면 다이얼
- **기계적 우수성:** 12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이로투르비용, 16 초마다 360° 회전하는 내부 케이스, 1 분에 1 번 회전하는 페리페럴 캐리지
- **혁신적인 더블 휠 버클 메커니즘:** 0.5mm 단위로 조절 가능한 18K 핑크 골드(750/1000) 폴딩 클래스프

예거 르쿨트르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히브리스 컬렉션을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의 기계적 및 예술적 잠재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뉴팩처 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의 기술을 활용해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에 그리스 신화 속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인그레이빙해 완성된 새로운 타임피스에는 핸드 래커 처리된 다이얼 플레이트와 브리지가 돋보입니다. 풀 스켈레톤 처리된 뒷면 다이얼은 핸드 베벨링 처리된 브리지 및 투르비용 케이스와 조화를 이룹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페가수스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혁신적인 클래스프를 갖춘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함께 제공되며,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메티에 라르 ™ 아틀리에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폴로부터 페가수스까지: 그리스 신화 속의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제우스의 번개를 나르고, 발굽이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자유와 창조적 힘,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을 상징하는 페가수스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를 넘어 기술이 예술로 승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대변합니다.

페가수스의 상징성은 승마에서 유래한 리베르소의 기원과도 깊이 공명합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탄생한 리베르소의 회전식 케이스는 보호와 표현, 규율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담아내며 말의 이중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강렬함과 독립성, 그리고 대담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며, 말은 단순한 영감을 넘어 리베르소의 핵심 가치인 기능성과 상징성, 그리고 창조적 진화를 하나로 잇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 아틀리에의 노하우가 깃든 핸드 인그레이빙 케이스에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고도의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종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타임피스 하나당 180 시간 동안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구름 위를 가르는 페가수스의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양각 인그레이빙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연출하며 풍부한 입체감을 강조합니다. 곡선형 케이스 측면을 따라 매끄럽게 이어지는 인그레이빙은 케이스 상단과 하단이 연결부까지 완벽한 일체감을 자랑합니다.

예술로 거듭나는 메커니즘: 페가수스를 둘러싼 구름 모티프는 앞면 다이얼에서도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높이로 배치된 두 개의 다이얼 플레이트는 시간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용 표시창의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강조합니다.

정교한 장식을 제작하기 위해 18K 핑크 골드(750/1000) 플레이트 표면에 50 개 이상의 홈을 파내어 구름 모양의 윤곽선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각각의 홈에 다양한 톤의 블루 래커를 수작업으로 여러 겹 채워 넣어, 윤곽선과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도록 완성합니다.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오픈워크 브리지 역시 다크 블루 컬러로 핸드 래커 처리하여 무브먼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매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장식 예술뿐만 아니라 기계적 메커니즘까지도 예술의 경지로 이끄는 히브리스 시리즈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케이스를 뒤집으면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 듀오페이스 무브먼트가 드러나면서 칼리버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스켈레톤 처리된 아워 미닛 링과 이를 지지하는 브리지의 섬세한 트레이서리(tracery) 장식은 블루 래커로 마감되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블루 래커 마감은 18K 핑크 골드(750/1000) 무브먼트 부품의 따뜻한 톤, 그리고 마이크로블라스팅 처리된 표면의 부드러운 질감과 대조를 이룹니다.

스켈레톤 디자인은 핸드 베벨 및 래커 처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자이로트루비옹의 케이스에만 약 14 시간의 핸드 베벨링 작업이 필요하며, 뒷면에 위치한 브리지의 시그니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8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적 걸작

투르비옹의 매력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자이로투르비옹의 네 번째 버전인 칼리버 179 는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 다축 투르비옹으로, 직사각형 케이스를 지닌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직사각형 케이스 형태에 맞는 무브먼트인 동시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슬림한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칼리버 179 는 각 다이얼에 다른 시간대를 표시하는 듀오페이스 무브먼트로 설계되어, 뒷면 다이얼에는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이로투르비옹은 복잡한 구조와 압도적인 움직임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초경량 티타늄 케이스와 볼 베어링에 장착된 페리페럴 캐리지를 포함해 총 12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캐리지는 서로 수직을 이룬 채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내부 투르비옹 케이스는 16 초마다 360 도 회전하며, 페리페럴 캐리지는 1 분에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페리페럴 캐리지는 스몰 세컨즈 기능 또한 겸하고 있어, 투르비옹 표시창을 둘러싼 링 위에 스몰 세컨즈를 표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메커니즘의 중심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그레이 컬러의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과 자이로랩 밸런스 '휠'의 독특한 이중 앵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요소 모두 높은 정확도와 기계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열정을 증명합니다.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을 제작해왔으며, 자이로투르비옹 중심의 빈 구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은 기계적 효율성뿐 아니라 미적 세련미까지 더해줍니다. 자이로랩의 이중 앵커 형태는 공기 마찰을 줄여 측정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투르비옹 메커니즘은 기존과 같은 브리지 대신 볼 베어링 링으로 지지되어, 플라이잉 자이로투르비옹이 리베르소의 앞면 및 뒷면 다이얼 사이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투르비옹 표시창 바로 아래, 시계 크래들에 위치한 폴리싱 처리된 블루 래커 디스크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반짝임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리베르소: 아르데코에서 시작되어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잡기까지

1931년 첫선을 보인 리베르소 특유의 아르데코 라인과 회전식 케이스는 워치메이킹 역사에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선적인 기하학적 구조와 조화로운 비율의 리베르소 케이스는 시그니처와 같은 정교한 슬라이드 및 회전형 메커니즘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이얼 위아래와 하단의 시그니처 가드룬 장식, 케이스 크래들 내부에 깊게 새겨진 선레이 패턴으로 강조되는 강렬한 아르데코 라인은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페가수스의 정교한 케이스 및 다이얼과 균형을 이룹니다.

칼리버 179 만큼 복잡한 무브먼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케이스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페가수스는 12.41mm의 두께에 세련된 러그를 갖추어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다크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에는 조절 가능한 폴딩 클래스트를 적용해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세련된 품격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로 제작되었으며 총 46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클래스프는 정교한 더블 휠 시스템으로 0.5mm 단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해 손목에 꼭 맞는 편안한 핏을 제공합니다.

예술과 메커니즘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들을 위해 탄생한 리베르소 히브리소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페가수스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한데 모은 180 가지 기술로 탁월한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장식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히브리소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51.1 x 31mm, 두께 12.41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9

기능: 양면 다이얼의 시, 분, 후면 다이얼에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세컨드 타임존, 자이로투르비옹(양면 다이얼에서 모두 확인 가능)

파워 리저브: 40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래커

뒷면 다이얼: 블루 래커의 스켈레톤 구조

방수: 30m

스트랩: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레퍼런스: Q39424E5 -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널 수 있도록 제작된 워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5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